

청주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5고단429 판결 특수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 이용음란)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5고단429 특수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사	배지훈(기소), 권인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28.

주 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 E 등과 함께 2013. 1. 24. 02:25경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소재 대원아파트 903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화물차의 적재함 천막을 열고 그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함께 16만 원 상당의 과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3. 7. 14. 13:59경 청주시 흥덕구 H빌라 203호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틱톡' 및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I(여, 당시 17세)의 휴대전화로 "아다한번깨줘, 돈줄께, 함줄라구?, 보지빨고싶당, 함달라구" 등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역,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소년이던 만 17세 때에 저지른 범행인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수 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

미주

[1]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0 절도범
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6월